



해외출장 가이드

# 아르헨티나 출장자료

# I. 국가 개황

## 1. 일반 현황

- 국명 : 아르헨티나 (República Argentina)
- 국체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재임 가능)
  - 현직 대통령 : Mr. Mauricio Macri ('15.12.10일 취임)
- 의회 : 상·하 양원제 (상원 72석, 하원 257석)
  -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4년으로 매 2년마다 교체
- 정당 :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 FV),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PJ/페론당), 급진당(Unión Cívica Radical-UCR), 공화제안당(PRO), 평등공화국을 위한 연합(Alianza de una Republica Igualitaria-ARI) 등
- 인구 : 4,302만 명 (남 49%, 여 51%)
  - \* 한국 4,888만 명, 브라질 2,078만 명, 칠레 1,709만 명
- 병력 : 103,500명 (육군 4만 명, 해군 2만 명, 공군 13,500명, 보안군 3만 명)
- 인종 : 백인 97% (유럽계 백인 97%), 기타 3% (인디오 0.5%)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289만 명, 수도권 1,497만 명)
  - 수도 면적 202km<sup>2</sup> (서울의 1/3)
  - 23개 주정부 및 1개 연방수도로 구성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 소유)
- 면적 : 279만km<sup>2</sup> (세계 8위)
  - 본토 기준 한반도(22.2만km<sup>2</sup>)의 약 12.5배, 남한(9.9만km<sup>2</sup>)의 28배
  - 해안선 길이 4.725km
- 기후 : 북부의 아열대 기후에서 남부의 한대 기후까지 분포
  -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 언어 : 스페인어 (문맹률 2%)

- **종교** : 로마 카톨릭교 (92%), 개신교 (2%), 유대교 (2%), 기타 (4%)
- **화폐** : 페소(Peso)
- **시차** : 서울과 12시간 차이 (-12시간)

## 2. 주요 역사

- 1580년 스페인 식민통치 시작
- 1810. 5.25 5월 혁명 (독립운동 시작)
- **1816. 7. 9**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독립 운동지도자 산 마르틴 (San Martin)장군)
- 1946. 6. 4 페론 (Juan Domingo Peron) 대통령 취임
- 1955. 9.16 페론 대통령, 쿠데타로 실각·망명
- **1982. 4. 2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6.14 종전)**
- 1983.12.10 알폰신(Raul Alfonsin) 대통령(UCR당) 민간정부 출범
- 1989. 7. 8 메넴(Menem)대통령 집권 \* 초인플레이(2,200%) 영향
- 1991. 4. 1 태환정책(미화와 페소화를 1:1로 교환) 실시
- 1995. 7. 8 메넴(Carlos Saul Menem) 대통령 4년 임기 재취임
- 1999.12.10 야당연합(Alianza) 데라루아(De la Rúa) 정부 출범
- 2001.12. 1 예금인출 제한조치 전격 발동
- 2001.12.20 민중시위로 데라루아(De la Rúa) 대통령 중도 사퇴
- 2001.12.23 의회, 사아(Rodriguez Saa) 임시 대통령 선출
- **2001.12.24 아르헨 정부, 민간 대외채무 제 1 디폴트 선언**
- 2001.12.30 집권당내 정책 이견으로 사아 대통령 사임(7일 천하)
- 2001.12.31 의회, 두알데(Duhalde) 상원의원 대통령 선출
- **2002. 1. 7 태환제 폐지(법안 상하양원 통과), 이중환율제 실시 (공식-비공**

## 식 환율)

- 2002. 2.11 단일 변동환율제 실시(이중환율 중 공정한환율 폐지)
- 2002.11.14 對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채무불이행(제2 디폴트 사태)
- 2002.12. 2 요구불 예금 현금인출 제한조치(Corralito) 해제
- 2003. 1.16 초단기 IMF 협상 타결(의향서 교환) \* 3.24 이사회 통과
- 2003. 5.25 페론당 키르츠네르 대통령 취임
- 2005. 3. 1 디폴트 국채 교환거래 성공으로 탈 디폴트 공식 선언
- 2006. 1. 3 아르헨티나 IMF 채무 전액 조기 상환 (US\$ 95억 3000만)
- 2007.12.18 페론당 크리스티나 대통령 취임
- 2008. 5.15 페론당 대통령 남편 키르츠네르 페론당 대표 취임
- 2009. 6.28 총선 실시, 페론당 실질적 패배(하원의석 17석 감소)
- 2011.10.23 크리스티나 대통령 대선 승리로 연임
- 2012. 4.16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 YPF(스페인계)에 대한 국유화 선언
- 2013. 10.27 총선 실시, 집권당 패배
- 2015.10.25 1차 대선투표로 Fpv의 Scioli(중도좌파)와 Cambiemos의 Macri (중도우파)가 2차 대선 투표 후보자로 결정
- 2015.11.22 2차 대선투표. Macri 차기대통령이 51.4% 득표율로 여당의 Scioli 후보와 2.8%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
- 2015.12.10 Macri 대통령 취임.
- 2015.12.16 외환규제 철폐, 폐소 40% 평가절하
- 2015.12.23 사전수입승인허가제(DJAI) 철폐  
종합수입모니터링 제도 도입 (SIMI)

### 3. 시장특성

#### □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스페인어 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에서 GDP·교역 면에서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3위
  - 인구 4,302만 명으로 비교적 큰 자체시장 형성
- 2015년 1인당 GDP(PPP 구매력 기준)는 22,707달러로 중남미 최고 수준

#### □ 풍부한 광물·에너지·식량자원 보유국가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가인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4위, 셰일가스가 세계 3위임.
- 아르헨티나 수출의 53%가 농축산물 및 광산물
  - 해바라기 기름(생산·수출 1위), 대두유(수출 1위, 생산 3위), 꿀(수출 1위, 생산 2위), 옥수수(수출 2위), 대두(생산 3위), 소고기(생산 3위), 포도주(생산 6위) 등

#### □ 공산품 수입 의존시장

-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생산에 의존
  - 예 :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79%, 가전 및 통신기기 60%
- 부품 류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

#### □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지배시장

- 아르헨티나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 중 외국계가 전체의 71.3% 차지
  - 2014년 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 2015년 2월부터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협정하여 제 4-5 회 핵발전소를 설립함. 이 때 투자금의 85%는 중국이 부담함.
- 외국계 중에서는 스페인이 압도적
  - 100대기업 중 석유, 전화, 가스, 항공부문의 4개 기업만으로 13.2% 차지

#### □ 전문 유통망 확대 추세

- 9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 대형 유통망 증가 시작.
- 2013년 중국계 슈퍼마켓(Autoservicio)이 확대되어 점포수가 10,788개 이상이었으나, 대형마트 성장 및 동결가격으로 인해 2015년에는 중국슈퍼마켓 수가 10,300개로 감소됨

## II. 아르헨티나 경제 및 교역 현황

### 1. 최근 경제동향

○ 경제성장률 : -0.8% 수준 (2016년 2분기 기준, EIU)

- '99년부터 4년간 경기침체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19.5%)을 보였으나 '03년부터 키르츠네르 정부가 들어서고 2007년 까지 경제가 44.2% 성장함. 그러나 2007, 키르츠네르 부인 크리스티나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1.9%까지 감소되었음. 이에 대한 이유는 외화보유 급감 및 폐소 가치 평가절하의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
- 2014년 7월 30일 채권단과의 협상 실패로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짐. 경제성장률은 0.5%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대 브라질 수출부진, 헤지펀드와의 소송, 불안한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등 2015년에도 저성장 기조는 계속 됨. 하지만, 대통령으로 12월 기업인 출신 마끄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침.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예측은 2.8%, 민간예측은 0.3%로 저조한 성장률을 다시 한 번 기록.
-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 디폴트, 외환부족과 더불어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브라질의 경기둔화로 2016년 성장률은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IMF).

####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추이

(단위: %, US\$ at PP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경제 성장률	9.2	8.4	8.0	3.1	0.1	9.5	8.4	0.8	2.9	0.5	1.7	0.7	1.9
1인당 GDP (PPP)	11,051	12,236	13,527	14,597	14,420	18,190	21,065	21,308	22,052	22,261	22,707	22,697	23,510

자료원 : EIU

- 물가: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통제
  - 2008년 이후 인플레이션 급상승
  - 2014.1월 정부의 페소화 평가절하 및 일련의 가격동결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음.
  - 2015.12월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불공정 환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단행(40% 절하). 주요난제인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물가상승은 지속되었음.
  - 정부는 2016년 공식 물가 상승률은 25%, 2017년에는 17%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예측 인플레이션의 경우 2016년에는 36.45%, 2017년은 19.5%로 예상함. 중앙은행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연간 5%임.
  - 전 정부의 수년간 자행된 통계 조작으로 정확한 가격 인상률과 인플레이션을 산출할 수 없었는바, 2016년 하반기 통계청의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정부발표	3.7	6.1	12.3	9.8	8.4	7.2	7.7	10.9	9.5	10.8	10.9	23.9	20.5*	25
민간예측	4.0	7.0	13.0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36.45

주 : \*은 추정값

자료원 : 정부발표: 중앙은행, 민간예측: MIT (Inflacion Verdadera)

### ○ 환율 : 13,75 페소 (6월 22일 기준)

-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인 대미환율 상승으로 2011년 10월부터 강력한 외환규제를 실시해왔음.
- 환율 안전성 및 재정적자 충당 위해 끼르츠네르 정부는 2014년 한 해 약 853억 페소를 추가 발행함. 그리하여 총 1600억 페소를 기록.
  - 정부는 2015년 공식 및 비공식 환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및 국채발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려 했으나, 외환 규제는 풀지 않음.
- 헤지펀드 채권단과 협상실패로 디폴트 선언 후 비공식 대미환율은 16페소 까지 증가. 2015년 12월 마크리 대통령 취임 후 외환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환율을 단일화.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달러 매입제한이 풀리고,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가 줄었음.
- 정부의 적극적인 FDI 투자유치 및 외환보유고 증가, 헤알화 약세 등으로 인해 달러 대비 페소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강제 현상 지속.
- 아르헨티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17~18 ARS선이 되어야한다고 주장.

### 아르헨티나 달러 대비 환율 변동 추이

(단위: 페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달러 대비 환율	2.92	3.06	3.12	3.16	3.73	3.91	4.13	4.60	5.5	8.1	9.3	13.7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16년 6월 기준

#### ○ 실업률 : 10% 이내 수준 유지

- 경제성장 영향으로 16년 이내 최저의 실업률 기록
- . 2006년 이후 실업률 한 자리 수로 하락
- 세계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업가장은 실업자에 미포함
- .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실업률은 3%포인트 이상 상승

### 아르헨티나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업률	14.5	12.1	10.1	8.7	7.5	7.3	8.4	7.3	6.7	6.9	6.4	7.3	7.6	8.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2016년 6월 기준

#### ○ 공공외채

- '05. 1. 12 디폴트 국채 교환 거래안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가 파리클럽 채권단에게 채무 분할 상황을 시작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 디폴트 선언 전 파리클럽에 6억4천200만 달러를 상환했고, 2015년 5월 11억 5천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음. 2016년 5월부터는 매년 연간 20억 달러의 할당 금액을 상환하게 됨.
- 당국은 중국과의 통화스왑협정 (약 110억 달러)을 통해 줄어드는 외국환 어음을 충당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는 300억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 2016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채액은 98억 달러로 예상되며 그 중에 70%가 이자로 생긴 금액이라고 재무부 장관 프랏 가이(Prat Gay)가 밝힘. 마크리 정부는 올해 헤지펀드와의 외채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지펀드 부채 지불과 관련된 신 법률을 도입함. 또한 당국은 04월 14일까지 46억 달러를 현찰로 지불해야 함.

(단위:U\$억,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액	1,471	1,643	1,277	1,412	1,371	1,115	1,104
GDP 비중	48.8	45.3	41.8	44.9	43.6	27.3	25
외환 보유액	480	522	463	432	305	314	248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2015년 12월 기준

### ○ 금리

- '03년부터 저금리 기조에서 최근 금리 상승 추세
- 은행수수료가 높아 실질 소비자부담 금리는 10% 정도 상승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
30일 우대	7.1	7.0	10.2	15.8	9.4	13.1	14.7	13.8	18.0	20.4	21.25	27.1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16년 6월 기준

### ○ 경상수지

- . 2008년도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7,588백만 달러 흑자
- .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정부의 수입 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시현, 2010년은 흑자폭 대폭 감소
-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를 통해 중앙정부는 무역수지 흑자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성장세였음.

(단위 : U\$백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수지	3,851	6,114	4,971	4,806	9,712	1,359	-2,380	48	-4,696	-5,069	-14,338
무역수지	73611,663	12,306	11,072	13,175	16,980	11,632	13,207	15,372	11,119	9,484	-302
서비스수지	-992	-501	-513	-1,026	-758	-1,144	-2,238	-3,366	-4,105	-3,918	-3,622
소득수지	-7,304	-6,150	-5,941	-7,493	-9,211	-9,881	-11,951	-11,503	-11,011	-10,960	-9,975
이전수지	484	459	353	150	2,701	-396	-539	-455	-789	-871	-439
기타	-	-	-	-	-	-58	-48	-69	-49	-67	-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중앙은행. EIU

## 2. 대외 교역 현황

### 1. 대 아르헨티나 교역현황

#### □ 개 관

- 2013년~2014년, 수출입 모두 2012년 대비 감소함.
  - 2014년 2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90일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 모두 감소하였음.
- 2015년, 새로 취임한 마끄리 대통령이 시장 친화적 정책 시행함.
- 2016년, 마크리 정부는 엄격했던 수입 규제(DJAI)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입 모니터링시스템(SIMI)을 도입함.

#### 아르헨티나 최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증감)	55,779 20.4	70,558 26.5	55,750 -20.4	68,134 22	83,950 23	81,205 -3	81,660 0.6	84,825 1	56,788 -17
수입 (증감)	44,707 31.1	57,413 28.4	38,771 -32.5	56,502 46	73,937 31	68,508 -7	73,655 7.5	65,249 -15	59,756 -8.4
수지 (증감)	11,072 -10.0	13,175 18.9	16,980 28.9	11,632 -31.5	10,013 -14	12,419 24	8,005 -35.5	22,406 119	-2,968 -51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2016년 4월 기준

#### □ 국별 교역동향

##### ○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

-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2010년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국가별 수출량이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수출량이 다시 감소함.
  -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모두 수출 상위 20위권 내에 자리 함.
  - 2013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했음.
  - 2014년 누적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 및 중국은 감소세를 보였음.
  - 2015년 아르헨티나 수출량은 158% 증가했으며, 수출동향 1순위를 되찾음. 반면에 1위였던 브라질은 수출량이 28% 감소하여 2위를 차지했고, 그 아래로 중국은 14% 증가를 보였음.

##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FOB기준 U\$백만, %)

순위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총수출	72,355	87,962	93,629	85,641	83,554	84,555	89,329	6%
1	브라질	12,147	15,112	18,387	17,388	17,440	14,857	10,661	-28%
2	티에라델푸에고	6,554	8,196	3,347	582	1,682	10,347	26,665	158%
3	중국	4,743	7,759	6,974	5,316	5,762	4,807	5,461	14%
4	미국	4,046	4,115	4,818	4,677	4,528	4,697	3,854	-18%
5	칠레	6,084	6,310	6,626	5,373	4,145	3,295	2,629	-20%
6	베네수엘라	1,306	1,611	2,082	2,450	2,342	2,319	1,644	-29%
7	스페인	2,564	3,396	3,597	3,565	1,856	2,181	1,582	-27%
8	인도	1,044	1,993	1,148	1,272	1,159	2,009	2,281	14%
9	우루과이	1,998	2,024	2,611	2,330	2,021	1,978	1,743	-12%
10	알제리	891	1,143	1,765	1,622	1,664	1,772	1,208	-34%
11	네덜란드	2,982	2,770	2,764	2,255	2,055	1,829	1,397	-21%
12	독일	1,646	2,210	2,504	2,010	1,726	1,693	1,485	-12%
13	베트남	607	800	771	858	1,272	1,676	3,429	104%
14	파라과이	954	1,360	1,663	1,641	1,392	1,452	1,167	-20%
15	인도네시아	876	999	1,443	1,600	1,576	1,392	1,152	-17%
16	페루	881	1,249	1,975	2,081	1,550	1,394	958	-31%
17	영국	851	926	861	892	774	1,215	799	-34%
18	이탈리아	1,799	2,062	2,218	1,386	1,168	1,216	1,038	-15%
19	이집트	703	1,144	1,812	1,062	1,317	1,111	1,199	8%
20	말레이시아	635	955	1,038	1,051	1,017	1,065	880	-17%
35	한국	577	777	987	1,392	1,047	529	619	17%

자료원 : NOSIS 민간통계사이트 (공식통계 아님)

주 : 티에라델푸에고-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 ○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

- 브라질이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함.
- 2012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엄격하게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수입은 전년 대비 7.3% 감소함.
- 아르헨티나 NOSIS 민간 무역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순위는 14위로 2013년 수입액은 2012년 대비 약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한국무역협회는 2013년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전년대비 10%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양국 통계 간 차이를 보여줌.
-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발생 직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까지는 순위가 없었던 나이지리아와 라트비아, 스위스 등의 국가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상위 20개국 순위의 변동이 존재함.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FOB 기준 U\$백만, %)

순위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총수입	34,113	51,643	69,718	66,578	73,655	62,418	60,103	-14
1	브라질	10,081	14,698	18,357	14,928	19,321	11,998	11,407	-5%
2	미국	3,733	4,990	6,699	6,990	8,008	7,294	6,496	-11%
3	중국	4,512	6,982	9,697	9,353	11,312	10,096	11,164	11%
4	티에라델 푸에고	153	600	926	1,090	700	6,122	332	-95%
5	독일	1,661	2,582	2,854	2,931	3,892	2,833	2,574	-9%
6	볼리비아	191	335	617	1,234	1,745	2,423	1,383	-43%
7	트리니다 드 토바고	221	482	1,251	1,832	1,861	1,780	914	-49%
8	벨기에	173	242	345	392	720	1,465	258	-82%
9	스페인	655	825	1,136	1,110	1,371	938	839	-11%
10	네덜란드	205	341	365	1,074	1,074	724	418	-42%
11	멕시코	1,070	1,663	2,314	2,063	2,161	1,465	1,659	13%
12	이탈리아	737	1,142	1,310	1,289	1,665	1,460	1,255	-14%
13	우루과이	378	846	1,139	1,311	527	936	1,110	19%
14	일본	624	860	996	977	930	824	879	7%
15	칠레	593	776	971	902	970	728	635	-13%
16	프랑스	652	883	1,091	1,167	2,072	1,101	1,186	8%
17	한국	543	847	972	1,031	1,239	819	1,009	23%
18	홍콩	19	27	36	30	27	32	33	3%
19	나이지리 아	1	2	196	56	248	578	16	-97%
20	스위스	361	431	502	512	464	476	228	-52%

자료원 : NOSIS

주 : 티에라델푸에고-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 품목별 동향

아르헨티나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백만)

순위	HSCODE	품목	2012	2013	2014	2015
1	230400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 와 유박	10,549	11,393	11,781	10,045
2	100590	옥수수 -기타	4,703	5,776	3,332	6,116
3	710812	금(그 밖의 가공하지 않 은 모양인 것)	2,260	1,994	1,797	2,225
4	870421	자동차(총중량이 5톤 이하) 조유(粗油)	3,304	3,743	3,156	2,274
5	150710	조유(粗油)	4,204	4,207	3,291	4,009
6	100199	밀, 호밀-기타	2,938	721	602	1,102
7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한정)	2,608	1,737	1,623	8,976
8	100390	보리-기타	840	912	627	230
9	220421	와인)	739	740	735	696
10	870321	자동차(1,000cc 이하)	676	1,205	1,168	568

자료원: NOSIS 2015년 12월 자료 기준

○ 수출 품목

품목(분야)별 수출 통계

(단위 : US\$백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산품	9,151	15,142	20,341	19,542	19,302	14,997	1,291
농·축산 가공품	21,550	22,661	28,268	27,474	30,059	28,153	23,290
공산품	18,958	23,816	29,193	27,660	28,413	24,145	17,954
원유 등	6,092	6,515	6,466	6,528	5,252	4,660	2,251
계	55,750	68,134	84,269	81,205	83,026	71,935	56,788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INDEC), 2016년 4월 자료 기준, 전년 동기대비

○ 수입 품목

품목(분야)별 수입통계

(단위: US\$백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4,707	57,422	38,771	56,502	73,937	68,508	73,655	60,750	59,756
자본재	10,397	12,635	8,852	11,647	13,969	11,810	12,106	11,681	11,759

중간재	15,371	20,225	12,579	17,687	21,793	19,994	19,514	17,377	18,088
자본재 부품	8,065	9,959	7,031	4,474	9,413	14,461	15,958	10,271	12,665
소비재	5,208	6,292	5,069	11,459	14,919	7,292	7,439	11,709	6,779
자동차	2,709	3,874	2,514	6,611	8,040	5,384	7,063	6,141	3,346
석유 등	2,845	4,334	2,597	4,482	5,592	9,267	11,343	3,347	6,841
기타	114	103	127	142	209	301	230	224	276.5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INDEC), 2016년 4월 자료 기준, 전년 동기대비

###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백만, %)

순위	HSCODE	품목	2012	2013	2014	2015
1	870323	자동차(1,500cc~3,000cc)	3,927	5,090	2,462	2,351
2	271111	액화천연가스	2,695	3,590	3,460	2,169
3	851770	통신기기 부분품	1,705	1,975	1,332	1,783
4	300490	의약품 기타	835	819	794	889
5	271019	석유와 역청유	3,955	4,694	3,673	2,085
6	300210	항혈청, 면역제품	577	668	675	764
7	271121	천연가스	1,206	1,432	1,846	1,383
8	870322	자동차(1,000cc~1,500cc)	1,044	1,510	951	163
9	851762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456	496	509	712
10	870840	자동차 기어박스와 부분품	861	908	753	544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16년 5월 기준

## 2. 투자유치 동향

### □ 투자진출 환경

- 거대한 공동시장 : 2005년 Mercosur 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출범, 2012년 베네수엘라 정회원국으로 추가 가입
- 지속적인 경제성장 : 2003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2009년, 2012년 하락세, 2013년 회복세를 거쳐 2015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
- 외국인 투자진출 업종 완전 개방
- 풍부한 자원과 인력 보유
- 페론주의에 입각한 친 노동자, 친 노조 노동법과 외환 거래 경직성으로 현지 법인설립 투자에 불리한 요건
- 아르헨티나 생산부 산하 신생기관인 투자무역진흥청에 따르면 새 정부 취임 이후 2016.5월말까지 40개 외국기업이 대 아르헨티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예상금액은 총 15,451백만불로 집계됨.

- 주요 투자분야는 광물, 에너지, 자동차, 통신, 등임.

- 폐소화 환율인상, 곡물수출세 폐지 (감축), 원자재 수입규제 완화, 기업과실 송금 가능성 확대, 디폴트 해제 등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면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 노조분쟁, 폐소화 절상, 치안문제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에 저해되는 현상들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려요인이 되고 있음.

## □ 투자유치 동향

- 남미 6위의 투자유치 실적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 2013년 113억, 2014년에 66억불 이상 투자유치

-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 집중

- 광업, 기간산업, 제조업 순으로 외국기업 진출

- M&A형 투자진출 증가

- 정치 불안으로 Greenfield 투자 증가율 정체

- 마크리 정부는 무역 시장 개방에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보임.

## □ 국별 투자진출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	투자액(누적)		증가율
		2009	2010	
	총액	80,144	88,249	10.1%
1	스페인	22,597	23,242	2.9%
2	미국	14,012	14,814	5.7%
3	네덜란드	6,873	7,328	6.6%
4	브라질	4,319	5,367	24.3%
5	칠레	4,363	5,509	26.3%
6	독일	2,586	2,940	13.7%
7	룩셈부르크	2,656	2,704	1.8%
8	우루과이	2,578	2,750	6.7%
9	캐나다	2,415	2,128	-11.9%
10	스위스	2,293	2,900	26.5%
	기타	15,452	18,567	20.2%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10년 이후 통계 미발표

### 3. 인증기관

#### □ 표준인증협회(IRAM)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표준에 부합할 경우 IRAM 인증마크를 부여
-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효력을 발휘
- IRAM 인증 분야

구분	분야	내용	비고
소비재 제품인증	화학제품	PVC 액세서리, 볼펜, 소화기 충전물질, 반사지, 브레이크 패드 및 용액, PE/PRFV 튜브 안전유리 등 안정성 인증	강제사항
	완구	완구 안정성 인증	“
	농임업 제품	목재, 복사지 등 종이제품 등	“
농식품 IRAM-Fundacion ArgenINTA (공동인증)	농식품 인증	햄버거, 달걀, 치즈, 닭고기, 차	선택사항
	BPM	제조우수사례 인증	“
	BPA	농업우수사례 인증	“
	PI	친환경적 농업에 대한 인증	“
	HACCP	식품 분야에서 위험과 관리의 임계점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
	BPM S.A.	식품부문제조우수사례 인증	“
	P.O.	유기농 제품인증	“
전기·전자		KTL을 통해 신청 가능 (전기·전자 제품 인증방법 참조)	“
기계·금속		견인장치, 기중기 등 안전, IRAM-INTI 공동 인증	“

#### □ 산업기술청(INTI)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설립근거: Consejo Directivo No. 32/2001)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 INTI 인증분야

분 야	업무내용
완구	완구 안전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Resolución) 163/2005
용기 (envase)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30/1998
시멘트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2/1998
신발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508/1999
포장지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아르헨티나 가스공사(Enargas) 표준
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용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검사기준 및 근거: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2001
식품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 받음.
에너지 라벨링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319/1999
자전거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088/2004
철강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 사용 시 최저 안전기준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404/1999
라이터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튜브, 타이어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53/2005
기계·장비	플라스틱·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음.

□ 식약청(ANMAT: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edical)

- 아르헨티나에서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의 인증을 받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함.
- 법령 17/06 호에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됨.
-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

### III. 한 · 아르헨티나 무역 및 투자현황

#### 1. 수출입 동향

□ 개요

- 아르헨티나, 무역 적자에서 무역흑자 전환
  - 2012년도,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수출액은 감소. 3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2013년도 1분기까지 수입이 급감했음. 또한 10월 총선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2013년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함.

연도별 교역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330,937	489,140	578,207	494,269	909,449	1,081,071	972,906	1,074,647	753,793	10468,47
수입	556,021	731,533	914,772	672,257	794,607	1,048,090	1,427,857	1,195,475	501,279	698981
수지	-225,084	-242,393	-336,565	-177,988	114,842	32,981	-454,951	-120,828	252,514	347866

자료: KOTIS 무역통계. 2016년 01월 기준

- 2014년 흑자를 보였으나 전년대비 교역규모는 각각 수출 -31.4%, 수입 -60.4% 를 기록함.
- 2015년 상반기 대 아르헨티나 무역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소폭으로 상승.

2013~16년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월별 수출입 동향(누계)

(단위: 천 달러, %)

월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3.1	60,308	-34.1	133,023	65.9	-75,715
2	139,661	-16.8	164,480	-16.2	-24,819
3	229,870	-8.4	200,748	-31.8	29,122
4	327,689	1.3	239,239	-33.7	88,450
5	427,573	6.5	383,622	-21.2	43,951
6	516,226	6.7	547,219	-8.4	-30,993
7	634,082	9.6	776,172	17.0	-142,090
8	753,345	14.5	905,874	20.5	-152,529
9	850,507	13.7	1,034,543	12.7	-184,036
10	948,199	15.5	1,092,572	0.4	-144,373
11	1,008,566	13.1	1,162,225	-8.6	-153,659
12	1,074,647	10.5	1,195,475	-16.3	-120,828
2014.1	68,984	14.4	32,635	-75.5	36,349
2	119,707	-14.3	69,747	-57.6	49,960
3	182,167	-20.8	92,937	-53.7	89,231
4	247,145	-24.6	150,180	-37.2	96,966
5	310,729	-27.3	174,728	-54.5	136,000
6	382,442	-25.9	193,117	-64.7	189,325
7	462,691	-27.0	234,428	-69.8	228,263
8	521,346	-30.8	289,524	-68.0	231,822
9	575,948	-32.3	356,904	-65.5	219,044
10	631,759	-33.4	428,339	-60.8	203,420
11	691,406	-31.4	460,461	-60.4	230,945
12	753,793	-29.9	501,279	-58.1	252,514
2015.1	86,431	25.4	70,463	115.9	15,968
2	149,786	25.2	134,921	255.1	14,865
3	246,327	35.3	190,509	106.5	55,818
4	316,859	28.3	226,028	52	90,831
5	399,082	28.5	253,054	45.9	146,028
6	510,182	33.5	298,676	55.6	211,506
7	617,556	33.5	382,069	63.6	235,487
8	698,675	34.1	438,912	52.0	259,763
9	811,450	41	506,890	42.4	304,560
10	901,662	42.5	578,378	34.9	323,284
11	971,525	40.3	621,001	34.8	350,524

12	1046847	38.9	698981	39.4	347,866
2016.1	73,990	-14.4	51,441	-27	22,549
2	188,589	26.2	98,306	-27.1	90,283
3	288,248	17.1	165,498	-13.1	122,750
4	353,254	11.5	268,680	18.9	84,574
5	413,729	3.8	364,857	44.3	48,872

자료: KOTIS 무역통계, 2016년 6월 자료 기준

## □ 수출

- 수출은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공산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10% 감소하였음.
  - 2013년 들어 2012년 대비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미미하게 증가함.
  -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수입규제가 적은 부품이나 원자재에 집중되었음.
  - 2014년 들어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입이 다달이 줄어들고 있었으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음.
  - 2015년 8월 기준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전화기 부분품이나 기타 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30%이상 증가했음.

###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MTI 6단위)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4		20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51770	기타 전화기 부분품	163,347	14	317,674	89.8
2	901380	그 밖의 기기	42,765	-60	58,137	35.9
3	852990	기타	42,755	-38.5	56,222	31.5
4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시	15,996	-92.3	51,997	225.1
5	291736	테레프탈산과그염	40,386	223.1	40,564	0.4
6	847989	기타	10,385	448.2	32,455	212.5
7	741999	기타	13,128	0	15,542	18.4
8	390690	기타	27,332	16.1	15,391	-43.7
9	840734	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시	12,358	-35.3	12,714	1.4
10	870899	기타	11,227	-37.6	11,674	4

(단위: 천 달러, %)

자료: KOTIS, 2016년 6월 기준

## □ 수입

- 2012년에는 2011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식의 1대1 수입쿼터제도가 엄격하게 이루어짐. 수입쿼터 확보를 위해 한국의 원자재 수출이 증가함.
- 2013년은 전통적으로 수입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두유, 동광, 박류 부문에서 수입이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무려 44% 감소함. 2014년에는 액화 프로판과 액화 부탄 등 새로운 수입품목이 추가되었고, 면 수입량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에도 꾸준히 증가했음.
- 2015년에는 대두유 수입이 증가했고, 조유수입도 70.5%에 달하는 증가량 보임. 반면 은광과 정광수입은 48.5% 감소했고, 탄산리튬 수입도 72.4%로 감소함.

###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품목(MTI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4		20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30400	대두유	32,607	-18.3	360,69	1006.1
2	261610	은광과 그 정광	42,705	124.1	55,241	29.4
3	150710	조유	152,682	-28.1	94,513	-38.1
4	030382	가오리와 흥어	26,733	5.2	42,053	57.3
5	100590	기타 옥수수	136,442	-82.9	78,995	-42.1
6	260800	아연광과 정광	20,647	413.1	4,276	-79.3
7	030617	기타 새우류	9,060	276.8	9,706	7.1
8	283691	탄산리튬	4,018	480.6	3,358	-16.4
9	220421	2리터 이하의 포도주	3,608	13.8	4,050	12.2
10	200811	땅콩	3,922	5.6	3,905	-0.4

자료: KOTIS, 2016년 6월 기준

## □ 수입규제

### ○ 반덤핑 규제

- 2015년 10월 16일 기준 아르헨티나 관세청(CNCE)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내에서 79개의 반덤핑 규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 국가는 중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 1건이 포함되어있다고 함.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2013년 10월 11일 종료 되었다.

- 삼성유입 변압기(단락용량이 10,000KVA 초과 600,000KVA이하의 것)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14년 7월 2일에 종료되었음. 결정문 308/14에 의하면 조사대상국인 한국은 2015년 1월 18일부터 향후 5년간 52%, 중국은 54%의 반덤핑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규제안 적용이 2017년까지 유예 되었다고 함.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	반덤핑	'12.04.23	협의 판정 2013.10.11)	- 관세율: 8% - 규제기간: 행정령 691/2013을 통해 협의 판정. 2013년 10월 24일부터 5년 간 반덤핑 규제 적용.

자료원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대 한국 반덤핑 조사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삼성(유입) 변압기(단락용량이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2.12.27	반덤핑법 적용 유예 (2017.7.17 까지)	전기기기·TV·VTR	- 조사대상국(덤핑마진): 한국(178.64%), 중국(139.04%)

주: 2015년 10월 16일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행정령 제 3252호에 2012년 2월 1일부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 제도(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도입을 공고함.
  - 동 제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모든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사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각 관련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2015년 12월 중도 우파 성향의 마크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위반판정으로 기존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를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신 해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전격 시행함.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발동
  - 수입규제 완화 조치로 기존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를 전격 폐지하고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I 운영.
  - SIMI 시스템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하여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수입허가가 나오는 자동허가제(LA, Licencia Automatico)와 각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비자동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o)로 나뉨.
  -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자동통관 개념인 자동수입허가(LA)를 받을 수 있음.
  - 수입허가(LNA)가 필요한 일부 품목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됨.
  - 2015년 12월 23일부터, 전 정부의 DJAI 제거 후, 신 정부로부터 SIMI 적용함.
  - 자동허가제(LA)와 비자동 허가제 모두 90일의 유효기간이 주어짐. 허가를 받고 90일 이내 통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처리됨.
  -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의 SIMI 시스템 등록서류는 품목별로 다른 허가제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HS코드를 통한 사전 확인 필요.
  -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물품 내용이 실 수입제품 특징과 다른 경우 (불일치할 경우) 수입이 불가.
    - \* FOB 단가 5%, 수량 4% 이상 차이
  - 예외 : 샘플 및 아르헨티나 최남단 자유무역지대(Tierra del Fuego)에서 생산된 제품
- 수입허가제(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주로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철강제품, 장난감등에 집중되어 있음.
  - 수입허가제(LNA) 제품군
    - \* 종이, 봉지, 봉투, 박스, 공책, 달력, 포스트 카드 등
    - \* 전자제품: 난로, 오븐,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 TV, 음향기, 소규모 가전제품 등
    - \* 장난감
    - \* 신발(일반)
    - \* 오토바이
    - \* 카펫, 점퍼, 셔츠, 자켓, 기타 의류
    - \* 타이어
    - \* 가방류

- \* 철강제품: 철사, 튜브 및 관, 튜브 악세서리, 식기류, 손공구, 턴키, 보일러, 온수기, 산업용 오븐, 크레인, 유압잭, 승강기, 손수레, 농업용기계, 철판, 너트 및 볼트 등
- \* 면, 양모 및 인조 원료의 원사 및 원단
- \* 화학제품, 목재, 유리제품, 철강케이블, 테이프, X-Ray장비, 비중계(온도계, 기압계), 타이머, 현악기, 가구 및 부품, 침대, 전등, 라이터 및 점화기, 압력버튼, 폴리우레탄 등
- \*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수입대금 결제 규제

- 신정부의 외환규제 완화 정책으로 2015년 12월 17일부터 개인은 월 200만 달러까지 외환매입 자유화함.
- 전 정권에 적용되고 있었던 수입대금결제 규제는 사실상 철폐됨.
-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 허가와 등록 불요

○ 관세일반현황

- 2011년 12월에 개최된 남미공동시장 위원회 회의 때 제의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불균형 해소 정책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관세 35% 인상 대상 100개 선정 품목 발표를 함. 최종적으로 2013년 1월 22일부로 100개 전략품목에 대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전체가 20%에서 최대 35%까지로 관세를 인상 발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한 2012년 7월 1일부로 0%인 자본재 수입관세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밖에서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14%, 국내 생산의 없는 자본재의 경우는 2%로 관세인상.

<관세율 인상 100개 품목>

HS Code	품목	수입 관세	HS Code	품목	수입 관세
0810.50.00	키위프루트	35%	8450.20.9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35%
0901.21.00	커피(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35%	8462.21.00	수치제어식의 것	35%
1209.29.00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중 기타종자	35%	8462.29.00	기타 굵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	35%
1516.20.0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35%	8467.29.92	전동기를 저장한 것 기타	35%
1517.90.90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35%	8471.30.12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35%
1604.14.10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35%	8471.30.19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	35%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물 중 기타			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1604.20.1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35%	8471.41.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35%
2002.90.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중 기타	35%	8471.41.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35%
2003.1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5%	8471.49.00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35%
2008.20.10	파인애플	35%	8450.20.9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35%
2106.90.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22%	8462.21.00	수치제어식의 것	35%
2202.90.00	비알콜음료	35%	8462.29.00	기타 곱합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	35%
2208.30.20	위스키류	35%	8467.29.92	전동기를 저장한 것 기타	35%
2309.90.90	사료용 조제품-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	20%	8471.30.12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35%
2401.10.90	앞담배(주막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한함)	35%	8471.30.19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35%
2933.69.13	기타 피리미딘고리 또는 피페라진 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35%	8471.41.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35%
3304.99.90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메니큐어, 페디큐어제품류	25%	8471.41.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35%
3808.94.29	소독제류	20%	8471.49.00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35%
4011.10.00	승용차자동차에 해당하는 타이어제품(스테이션왜건과 경주자가용의 것도 포함)	35%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35%
4011.20.90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35%	8510.20.00	이발기	35%
4011.40.00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35%	8516.29.00	기타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35%
4011.62.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타이어(립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35%	8516.32.00	기타의 이용기기	35%
4011.63.1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타이어(립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35%	8516.60.00	기타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 링·그릴러와 로스터	35%
4411.92.90	기타 목재와 그 부품 및 목탄	35%	8516.71.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35%
4421.90.00	기타 목제품	35%	8516.79.90	가정용 전열기기의 기타항목	35%
4504.90.00	기타 응집코르크제품	35%	8517.12.11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5%
6406.10.00	신발 안창	28%	8517.18.9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35%
6802.93.90	화강암	35%	8517.18.99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35%

### ○ 서비스 규제

- 연방세입청(AFIP)은 2015년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허가 규제안을 발표함. 이

들은 품목 수출에 적용되는 사전수입신고제 (DJA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전서비스신고제(DJAS)를 발표.

- 이를 통해 무역업자들은 해외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에게,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무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정보들을 국가재정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됨. 이는 서비스 수출입에 상응하는 허가를 행하기 위한 조치임

-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입자들은 국세청 시스템 등록 유무 및 설비 검증,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의 비율, 매출액과 해외대금송금의 비율, 은행 보증과 해외대금송금 비율, 판매액과 사전서비스신고 총액 비율, 연금 기여금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됨

- 사전서비스규제로 인해 문화업계 (영화, 음반, 비디오 등) 와 같은 많은 서비스 분야가 해외대금지급 문제로 큰 타격을 받음. 특히 경쟁력 있는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가 수출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표면적으로는 자금세탁 방지를 내걸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DJAI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2. 투자진출 현황

### □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 미미
  -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신고건수 2013년 12월까지 141건, 금액은 1억 8천만 달러 수준
  -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07%로 미미한 수준
- 경기회복으로 한국기업의 진출도 확대
  - 2011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투자가 증가했음.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로 인해 투자 부진
  - 2015년 말 취임한 마끄리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정책은 각종 수입 및 외환규제로 인해 경직되어 있던 아르헨티나의 투자 시장을 활발하게 할 계획임.
-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15.12.23일부터 종합수입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하여 수입과정 간략
  - 2015.12.17일부터 공정 및 불공정 환율 통합
  - 2016.20-23일 13년만에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국제무대로의 회귀를 시사함.

## 대 아르헨티나 법인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0까지	105	40	322,055	307	131,906
2001	2	1	4,310	3	5,255
2002	0	0	0	2	6,655
2003	2	0	13,700	0	0
2004	0	0	0	0	0
2005	0	0	0	0	0
2006	4	2	44,637	10	3,854
2007	6	3	21,772	9	3,805
2008	5	3	21,130	7	7,238
2009	3	1	674	8	2,734
2010	7	0	4,061	6	2,031
2011	3	3	21,060	11	14,887
2012	3	0	544	5	2,840
2013	1	0	900	1	900
2014	1	0	276	0	276
합계	158	60	459,628	385	185,3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2014년 12월까지 실적 반영 (2015년 실적 미발표)

##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58	60	459,628	386	185,659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5	88	29,434
광업	37	11	223,277	214	74,053
제조업	39	18	95,725	45	14,533
건설업	2	1	3,900	16	1,805
도매 및 소매업	11	5	78,430	14	64,1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1,010	1	2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	11	3	2,332	8	1,38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2014년 12월까지 실적 반영 (2015년 실적 미발표)

### □ 진출 한국업체 현황

- 제조법인은 없으며 판매법인 위주
  - 과거 경기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 우리기업이 투자진출 부진
  - 2011년 진출했던 한화무역 2012년 11월 22일부 철수
- 전자, 수산업 위주 투자
  - 가전회사 2사, 어업 1개사, 서비스업 1개사, 상사 1개사, 의료기기 2개사, 광업

## 1개사 진출

- 강력한 수입 규제로 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산업 지속적으로 부진.
- 아르헨티나 직접 진출보다는 규제가 적고 같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진출전략 필요.

기업진출 현황(2016년 6월 기준)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전자	1986	전자제품
상사	대우 INT'L	1977	무역, 자원, M&A
의료	세라젬	2007	온열치료기
	누가의료기	2008	온열치료기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선박검사,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등록 유치
어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광업	포스코	2015	리튬

## IV. 체류 안내자료

### 1. 주요 연락처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주소 : Olga Cossettini 831, Piso 2 (1107), Puerto Madero, C.A.B.A, Argentina
- 전화 : (54-11) 4312-0033
- 팩스 : (54-11) 4312-7755
- 대표 E-mail : kotra@kotra.org.ar
- 김상순 관장 ('16년 2월 부임)

○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 주소 : Av. del Libertador 2395 (CP.1425), Capital, Buenos Aires
- 전화 : (54-11) 4802-9665, 8062, 8865, 0923 / 4806-6796(영사과)
- 팩스 : (54-11) 4803-6993
- 추종연 대사 ('14년 11월 부임)

○ 주요 항공사 연락처

항공사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공항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8	4130-3000	4480-5000
Air Canada	Av. Cordoba 656	4327-3640/44	4480-9175
Air France	San Martin 344 Piso 23	4317-4700	4480-0524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881	4318-1111	4480-8202
Copa Airlines	Emma de la Barra 353 Piso 7	4132-3535	5480-4630
Lan Chile	Cerrito 866	4378-2222	4480-0021
Lufthansa	M.T. de Alvear 590 Piso 6	4319-0600	4480-0047
Malaysia Airlines	Suipacha 1111 Piso 14	4313-4698/4981	
Mexicana	Av. Cordoba 1131	4136-4101/05/36	5480-0256
TAM	Cerrito 1026	4819-4800	
United Airlenes	Av. E. Madero 900 Piso 9	4316-0777	4480-9175
Varig	Av. Cordoba 972 Piso 4	4329-9211	

## 2. 체류 유의사항

### ○ 기후 및 의복

-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 계절이 정반대로 의복도 한국과 반대로 준비 필요 (12~1월 여름, 7~9월 겨울)
-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은 사계절이 있으나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음

### ○ 치안상태

- '01년 말부터 경제 파탄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와 실업증가로 은행 및 슈퍼마켓 강도,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살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출 시 신변안전에 주의가 필요
- 특히 택시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단체로 이동

### ○ 강도 사례 및 사고 예방 방법

- 고가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 고가 시계 등을 소지품을 갖고 이동하는 행인 대상으로 강도들이 2~3명이 완력으로 물건을 뺏어 도주함.
-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 2인조 이상의 강도 중 한 사람이 악취가 나는 이물질을 옷이나 가방이 몰래 뿌리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속여 특정 가방을 벗을 것을 권유한 후 가방을 탈취하거나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강탈.
- 따라서, 도보로 이동시에는 항상 고가 소지품은 호텔에 두고 현금도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여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혼자 이동 중인 사람의 경우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단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보유자의 경우,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핸드백이나 고가품을 올려놓고 운전할 경우 오토바이 강도가 창문을 파손하여 소지품을 갈취하는 경우발생.
- 또한, 관리자 없이 주차된 차량의 경우도 네비게이션이나 귀중품이 눈에 보일 경우 창문을 파손하고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함.
- 따라서 주행 차량의 경우 소지품을 의자 밑에 두고, 주차 시에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교 통

- 택시는 기본요금 20.20페소, 200미터 당 2.02페소씩 추가  
    **심야(22시~6시) 24페소, 200미터 당 2.4페소씩 추가**
- 빈 택시는 앞 유리창 쪽에 Libre라는 빨간색 바탕화면에 하얀색 불이 들어옴.
- 택시를 탈 땐 항상 택시 번호와 좌석에 붙어있는 택시기사 정보와

택시기사 얼굴을 확인. 목적지의 경로(길avenida 이름; 대체로 큰 길을 말함)를 알고 있을 시에는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음.

- [www.viajotaxi.com.ar](http://www.viajotaxi.com.ar) 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 후 대략의 요금을 알 수 있음.

- 지하철(Subte)은 6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방사선형으로 도심에서만 환승가능하며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함



-A~E선, H선, P선이 있으며 계속 확장 중

-요금정보 및 운행 시간

1회권 5페소	학생권(한 달, 48회) 50페소
2회권 10페소	교사권(한 달, 44회) 100페소
20회권 85페소	이 외에도 다양한 요금이 있음
30회권 126페소	

노선(색)	출발지	운행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첫차	막차	첫차	막차	첫차	막차
A	Carabobo	23분	05:00	22:28	05:00	22:27	08:00	22:03
	Plaza de Mayo		05:00	22:54	05:00	22:56	08:00	22:32
B	J.M. Rosas	27분	05:00	22:25	05:00	22:25	08:00	22:01
	Alem		05:00	22:49	05:00	22:49	08:00	22:25
C	Constitución	13분	05:00	22:45	05:00	22:45	08:00	22:21
	Retiro		05:00	22:47	05:00	22:47	08:00	22:23
D	Congreso de Tucumán	26분	05:00	22:24	05:00	22:24	08:00	22:00
	Catedral		05:00	22:51	05:00	22:51	08:00	22:28
E	Plaza de los Virreyes	24분	05:00	22:27	05:00	22:27	08:00	22:03
	Bolívar		05:00	22:59	05:00	22:59	08:00	22:35
H	Corrientes	13분	05:00	23:00	05:00	23:00	07:58	22:32
	Hospitales		05:00	23:00	05:00	23:00	08:00	21:00
P	Intendente Sagui	22분	05:30	21:01	05:30	21:00	08:29	21:00
	Centro Cívico		05:59	21:29	05:59	21:29	08:29	21:29
P	Intendente Sagui	24분	05:38	20:56	05:38	20:56	08:09	20:50
	General Savio		06:05	21:23	06:05	21:23	08:36	21:17

- 버스(Colectivo)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약 200개의 노선이 존재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카드(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음)계산 시 3.5페소, 현금으로 지불 시 6페소
-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매우 흡사함. [www.xcolectivo.com.ar](http://www.xcolectivo.com.ar)에서 시내/시외버스 노선을 알 수 있고 시외버스 경우 표 구매도 가능. .
- FP미스(Remis)는 일반승용차이나 콜택시 형태로 운행되는 합법영업 교통수단. 총 합산 거리로 요금을 받아,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용이

○ 화폐

화폐 단위 및 사진			
단위	사진	단위	사진
5센타보		2페소	
10센타보		5페소	

25센타보		10페소	
50센타보		20페소	
1페소		50페소	
100페소(신권)		100페소	
200페소		500페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T/C 등을 소지하여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 악화로 대량의 신권 발행(에바 페론의 초상화).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1페소를 제외한 동전은 잘 쓰이지 않는 추세임.  
 2, 5, 10, 20페소 지폐들은 낡은 지폐가 많음.  
 2016년 중순부터 200,500 페소 지폐 발행 예정.

○ 결제수단 및 환전

- 환율 : US\$1= 15.60 페소('16.03월 10일 기준)
- 페소 이 외에 달러화도 일부 통용되고 있으나, 호텔이나 쇼핑센터 이외에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 후 사용
  - 쇼핑 상가 내 물품 구입 시 달러화 지불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결제수단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능하나, 한국식당 및 한국 선물가게 등은 신용카드 사용불가

○ 전화 사용방법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나 호텔 내 국제전화요금은 높은 수준임.

(10분 통화에 서울 통화기준 100페소 이상 소요)

- 현지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요금 대폭 절감
  - . 서울까지 10분 통화에 18.89페소 수준
-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연결료로 통화 당 U\$ 3 ~ 4을 청구하는 호텔이 많음.

**< 전화 사용 방법 >**

국제 전화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국	일반전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휴 대 폰	00-82-11-전화번호
		수신자부담	0800 8888 411
국제 전화	한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001(또는 002)-54-11-전화번호
		휴 대 폰	001(또는 002)-54-911-전화번호
국내 전화	시내통화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 대 폰	15-전화번호
	시외통화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휴 대 폰	지역번호 + 15 + 전화번호

**\* 주요도시 지역번호**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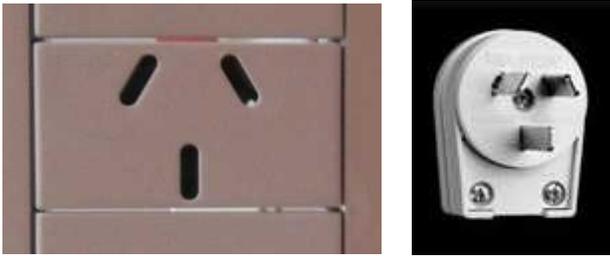
- 아르헨티나 시내 및 주택가에 전화방 및 PC방(Locutorio)이 많이 생겨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통화료는 공중전화와 같으며 국제 전화의 경우 시간에 따라 특별 할인 요금이 적용됨.
- 휴대폰의 경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 혹은 유심 칩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임.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클라로(Claro), 넥스텔(Nextel) 등, 4개사가 있으며, 유심 칩(약 15페소)만 구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함. 휴대폰 임대는 복잡하고, 과정이 복잡하여 사실상 사용이 불가함.

**○ 식수**

- 가급적 미네랄워터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음용
- 식수는 가스가 없는 sin gas와 가스가 있는 con gas가 있음

○ 전압, 주파수, 비디오방식

- 220V, 50Hz, (콘센트는 3 Knife형)



- 비디오 방식은 PAL-N방식(한국은 NTSC방식)

○ 팁 문화

- 호텔 : 침대 베개위에 1 달러(또는 10페소) 정도 놓고 나오며, 포터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달러(또는 10페소) 주면 되나, 가방수가 많을 경우 1달러 정도를 더 지불
- 현지 식당 : 음식 값의 다과에 따라 7 ~ 10%를 팁으로 지불, 대부분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팁 지불이 불가하오니 현찰 준비 필요.

○ 아르헨티나 교민사회

- 한국교민은 이민역사 50년에 약 2만5천명 내외
- . '98년 3만5천명에 달했으나 경제위기 심화로 대폭 감소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 추세
- 교민의 8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80%에 달하는 교민이 의류 생산·판매업에 종사하여 현지 의류시장 장악
- . 주요상권 : 온세(Once), 아베자네다(Avellaneda) 지역
- 한인 타운 (일명 : 백구촌)
- . 까라보보(Carabobo)와 까스따냐레스(Castañares) 거리 중심으로 한인 타운 형성(교회, 슈퍼, 식당 등 운영)
- . 호텔에서 택시로 40분 소요
- 한인회 및 50여개의 단체
- . 교회 : 40여개
- . 신문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현지판 발행
- . 학교 : 한국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 3. 주요 식당

- 한식당을 제외하고 현지 식당은 대부분 20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함. 따라서 20시 이전에 현지식당에 갈 경우에는 전화로 영업여부를 확인하고 가야 함.

#### ○ 한국식당

- 약 100여개 되는 한국식당이 있음
- 시내에 소재한 비원을 제외하고는 시내에서 택시로 40분정도 소요(편도 택시 요금 약 100 페소)되는 한인 타운(일명 '백구촌'과 '아베' 2곳)에 위치
- 가장 보편적인 메뉴는 한정식이며, 가격은 대략 15 ~ 20불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비 원	Junin 548	4372-1146	한정식
한국관	Saraza 2135	4632-8139	한정식
해운대	Thorne 1471	4924-9485	소갈비 · 불갈비 전문
경미정	Pumacahua 730	4631-1648	숯불구이 전문
대원정	Balbastro 2055	4633-4480	해물탕, 아구찜 등
석 정	Felipe Vallese 3209	4612-1385	숯불구이, 부대찌개 등
늘 봄	Bacacay 3236	4612-4911	탕, 전골, 생선구이 등
미 도	San Nicolas 513	4672-0005	한국식 일식집
월명장	Pumacahua 1679	4633-4142	한국식 중국집
대성각	Carabobo 1334	4633-3829	한국식 중국집
구이가	Moron 3155	4637-1200	삼겹살, 전골
향가	Carabobo 1549	4631-8852	보쌈, 삼계탕 등
미담	Carabobo 1559	4633-0589	한정식

#### ○ 현지식당

- 아르헨티나의 주요음식은 아사도(asado)와 빠리야다(parillada)로 주요식당은 주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와 국내공항 근처인 꼬스파네라 지역에 있음 (시내에서 10~15분 거리)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Las Lilas	Alicia Moreau de Justo 516	4313-1336	아사도 전문
Happening	Alicia Moreau de Justo 310	4319-8715	“
Rodizio	Av. R. Obligado s/n y La Pampa	4778-5405	“
Spettus	Alicia Moreau de Justo 876	4334-4126	“
Gardiner	Costanera Norte y La Pampa	4788-0437	“
Piegari	Posadas 1042	4326-9430	이태리식
Irifune	Paraguay 412	4312-8787	일식

#### 4. 관광 명소

##### □ 탱고쇼

##### <아르헨티나 커플의 탱고>



- 탱고 쇼는 대부분 2부로 나뉘져 있음. 1부(20:00 ~ 22:00)는 저녁식사이고, 2부(22:00 ~ 24:00)는 탱고 쇼임
- 입장료는 탱고쇼 관람 시 50불, 저녁포함 시 80불 내외

탱고장	주 소	전 화	비 고
Carlos Gardel	Carlos Gardel 3200 (중심가)	4867-6363	- 1시간 30분 공연
La Ventana	Balcarce 431 (시내 중심가)	4331-8689	- 규모가 다소 작음 - 1시간 탱고쇼, 1시간 민속쇼
Señor Tango	H. Vieytes 1655 (Boca 지역)	4303-0231	- 규모가 비교적 큼 - 2시간 탱고쇼 공연
Tango Porteño	Cerrito 570 (시내 중심가)	4124-940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30분 공연
Cafe del angelito	Av. Rivadavia 2100 (시내 중심가)	4952-232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디너, 1시 30분 공연

##### □ 대통령궁(Casa de Gobierno)

##### <분홍색의 대통령궁>



- 스페인 로코코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
  - 역대 대통령의 공식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사르미엔토 대통령부터 분홍색을 칠해 왔기 때문에 ‘Casa Rosada’ (분홍색 집)으로 불림.
-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사용
  -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전국에서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했던 역사의 현장임
- 대통령궁 앞에는 5월 혁명(독립운동)의 발상지인 5월 광장(Plaza de Mayo)이 있음

#### □ 국회 의사당(Congreso Nacional)

<국회의사당 전경>



-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
  -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ctor Meano)에 의해 디자인되어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에 완공됨
- 5월 대로를 통하여 대통령궁(Casa Rosada)과 연결
  -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임

□ 7월 9일 대로(Avenida 9 de Julio)

<7월 9일 대로의 낮(좌), 저녁의 대로와 오벨리스크(우) >



-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
  - 세계에서 도로 폭(140m)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알려짐
- 이 도로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탑이 있음

□ 콜론 극장(Teatro de Colon)

<콜론 극장의 외부(좌), 내부(우)>



- 남미 최고 예술의 전당으로 1908년 건설
  - 밀라노의 스칼라극장, 파리의 오페라극장과 함께 세계 3대 극장으로 꼽힘
- 입장 정원은 2,700명(입석까지 최대 4,000명)이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음악·발레 등이 공연됨

□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 중·근세 유럽 유명작가와 아르헨티나 일류작가의 작품이 전시
  - 엘 그레코, 모네, 고갱, 고흐 등
- 면적 9,750m<sup>2</sup>의 2층 박물관으로 1만여 점의 작품 소장

□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

<레콜레타 전경(좌), 에바 페론의 묘지(우)>



- 1882년 사망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가 깊은 묘지
  - 예술적 우수성으로 70여개의 묘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역대 대통령 13명의 묘를 비롯한 유명인의 묘가 다수
  - 페론 전 대통령 영부인(일명 : 에비타) 묘지는 외국인의 관광 명소임
- \* 에비타로 불린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영부인은 사생아로 태어나 불행한 소녀시절을 보냈지만 여배우가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음. 미모와 영화 같은 인생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 □ 보카 (La Boca)

<알록달록한 보카지구 전경>



- 탱고(Tango)의 발생지로 알려지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지역
-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 최초로 이민 온 사람들의 안식처였음

## □ 산 마르틴 광장(Plaza San Martin)

<산 마르틴 광장과 산 마르틴 장군의 기념비>



- 아르헨티나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페루, 칠레의 독립을 실현시킨 '자유의 아버지'로 숭배되는 San Martin 장군의 기념비(동상)가 있는 광장임.
- 주요행사시 이 기념비에 헌화를 함

## □ 플로리다 거리(Calle Florida)

<플로리다 거리(좌), 플로리다 거리에서의 탱고 공연(우)>



- 산 마르틴 광장에서 5월대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약 1 km의 상가거리  
- 부티크,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붐비고 있음

### 참고자료 1 : 아르헨티나 바이어 상담 유의사항

## □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6개월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전에 레터로 방문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인은 다른 중남미 사람들에 비해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 식사
  -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생선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선호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 쇠고기로 생선은 부활절 등에 제한적으로 먹는다.
  - 스테이크,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음식이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 인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은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 선물

-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 고리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추천되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 선에는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한다.
- 7월 20일은 '친구의 날'이다.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센스 있게 이메일로 안부를 묻자.

#### ○ 인사

- 아르헨티나 현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인 경우 가볍게 포옹하고 오른쪽 볼을 맞대는 '운 베시또 (un besito)' 인사법이 일반적이다.
- 초면인 경우 악수를 교환하여도 무난하다. 친해지면 '운 베시또'도 시도해 보자.

#### ○ 명함과 호칭

- 비즈니스 면담의 경우 상대방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 물론 아주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인의 성명은 보통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달리 모성(母姓)은 쓰지 않고 있다.
- 이름이 두 개일 때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가 성이 된다.(예 : Pablo Redondo 경우 Pablo는 이름, Redondo는 성).
- 이름이 세 개인 경우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성이다(예 : Antonio Lopez Crespo 경우 Antonio는 이름, Lopez Crespo는 성).

- ① 성(姓) 앞에 직위를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테(Presidente)는 사장, 디렉토르 헤네랄(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토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테(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 ② 남성에게 세뇨르(Señor), 기혼여성에게 세뇨라(Señora), 미혼여성에게 세뇨리따(Señ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 ③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토르(Dr. ;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 licenciado), 공학석사는 인헤니에로(Ing. ;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 복장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여타 중남미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트이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색이 추천된다.

□ 바이어 상담 · 거래 시 유의사항

○ 첫 대면에 자연스런 이야기 주제

-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으뜸가는 축구 강호로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치켜 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 라는 의미)라는 도시 이름처럼 아르헨티나는 공기가 매우 상쾌해서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띄워준 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상담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 이외 탱고, 마떼(mate), 아르헨티나 국기 등도 가벼운 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신국가로 바이어 판단하기

-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이민 국가’이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정치·경제·종교적인 이유로 이민한 이탈리아·스페인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국가로부터 이민도 붐을 이루었다.
- 현재 인구 4,302만 명 중 90% 이상이 유럽계 이민 후손으로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강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로부터 거만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다. 최근에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인근 국으로 부터 저임 노동력 유입이 많고, 중국(7만명), 대만(2만명) 등 아시아계 이민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아르헨티나인은 출신국에 따라 업종이 전문화되어 있고 상관습도 다르다. 스페인, 이탈리아계는 산업 전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 국가 출신은 특정 업종에 전문화되어 있다. 예컨대, 2만 명 내외의 한국인의 경우는 봉제업과 의류 도소매업에 교민의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 출신 국가별로 상담 스타일도 다른데 스페인·이탈리아계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Si(yes)’는 계약 또는 주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역관 경험으로 볼 때 꼼꼼한 바이어 일수록 계약가능성이 높았다. 중동 계 바이어는 ‘가격

(비용)이 머리에 있다(costos en la cabeza)'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치밀한 상담준비가 필요한 반면,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독일·영국·북구계 바이어는 사전조사가 치밀하고 분석적이다.

< 출신국가별 종사 업종 현황 >

- 스페인,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제조, 유통 등 전 업종에 진출
- 유대인 : 식물 수입 및 유통, 라디오, TV 등 언론, 부동산
- 아랍 : 신발, 피혁산업
- 중국 : 200㎡ 이하 소매점(5,800개 이상)
- 볼리비아 : 봉제
- 일본 : 화훼, 세탁소
- 한국 : 봉제, 의류 도소매업

○ 바이어 기질 : 유럽인이라는 자존심과 보수성

-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후손으로 남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 휴양도시 바릴로체를 '남미의 스위스' 등으로 부르고 있다.
-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여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거래를 오래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이다.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라 아시아 등 신규 거래선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수입관행

- 2001년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 감소 탓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크게 늘었다. 또한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 거래조건은 T/T & CAD가 일반적이다.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전통 관행상 외상거래를 고집해오다 디폴트 이후 대부분 현금, L/C 거래에 응해왔으나, 최근에는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를 요구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기술적 디폴트로 선언된 후 수출보험공사에서 매우 제한적인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지 상관행상 쪽 'Contract Sheet'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 제반 선적서류 작성에 대해 바이어가 계약시 간과 할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 등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price list 등에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창고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 기재하면 절대 안 된다.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문제 발생 시 현지 바이어(특히 유대인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진다. 특히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 바이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후 문제 발생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 역사적 · 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 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자.

-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하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 (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한국식 술 한 잔은 피하자.

- 아르헨티나에서 '술 한 잔(un trago) 하자'고 하면 동성연애자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식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분위기와 뉘앙스에 따라 상대가 남성인 경우 동성연애자, 여성인 경우 '작업을 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저녁식사를 초대할 경우는 정중하게 저녁을 초대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해야 한다.

○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혼드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
- 일례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함을 지르고, 돈 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동 행위를 인격 모욕적인 행위라고 무역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 재미있는 사회 엿보기

○ 아르헨티나인의 자화상

- 유엔개발계획(UNDP)의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기회의 시기'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인은 자화상으로 허풍쟁이, 부패, 남을 도와줌, 거만하다는 순으로 자신을 평가하였다.

<p>&lt; 아르헨티나인의 자기평가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 허풍쟁이(9%), 부패(9%), 거만(8%), 게으르다(7%), 개인주의(5%)</li> <li>○ 긍정적 : 남을 도와줌(9%), 부지런함(4%), 도전정신(3%)</li> <li>○ 기 타 : 축구(5%), 마떼(4%), 국기(4%), 탱고(3%)</li> </ul>
--

○ 가족경영 중소기업

-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적으로 가족경영 위주의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다. 1990년대 초 메넬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조치의 영향이다.
- 아르헨티나 기업에서는 부자(父子)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거래선과 관계를 유지한다.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초대하면 셋에 하나는 부자가 함께 나온다. 따라서 기업경영은 전문경영보다는 가업(家業) 수준으로 대물림되고 전통적으로 해당업종에는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모계 회사의 구매정책에 따라 좌우

되며 '관료주의'가 있다.

○ 사업하기 어려운 조세제도

-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자는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우선 '수입대금 통관 이전 지불' 규정이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고시에 의하여 HS 코드 8단위 기준 1,356개 품목은 현지통관 이전에 수입대금을 완불토록 하고 있다.
- 통관 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 통계세(0.5%),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 소득세(3%)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제품과 같이 특소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심하다.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는 사후에 신용(credit)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 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2 :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 거래 제의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하자.

-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제품·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
  - ※ 무역관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현지 활동명인 'KOTRA - Oficina Comercial de la Embajada de Corea (KOTRA -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로 기재
-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 인지도 및 거래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을 때에 회사소개서·카탈로그·가격표 등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샘플을 포함한 거래 관련 일체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다.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홈페이지·e-Book 등의 형태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선호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검토결과 문의는 1주일 뒤에 ...

-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일 예상 일에서 대략 1주일의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자료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게 되면 거래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

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에 정성을 다하자

-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종이로 인쇄된 자료를 파일에 철한 형태(바인더)로 회사소개서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회사소개서를 팩스 한두 장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에게 회사소개서를 보낼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국가별 바이어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좀 더 상세한 회사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아울러 제품소개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자세한 제품 관련 자료와 함께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약간 두꺼운 파일 형태로 편철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과거 한국의 한 업체가 제작한 7장짜리 제품소개서를 가지고 오피를 하였던니 바이어 측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자세한 내용의 제품소개서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전달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업체의 얼굴과도 같은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를 제대로 만들어 제공할 때에 바이어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의 철저한 준비 필요.

#### □ 전화통화시 유의할 사항

- 국제전화 고비용으로 기피
  - 아르헨티나에 인터넷 폰 등이 보급되어 국제전화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존의 국제전화 고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는 국제전화를 기피하고 있다.
- 담당자와 통화시 인내 필요
  - 아르헨티나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후에는 영업 때문에 자리에 없는 담당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독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비서에게 외출 중 또는 여행 중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비서와 친분형성 필요

- 아르헨티나 업체에서는 현지 비서들의 입김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와의 친분형성에 못지않게 바이어 사무실의 비서와도 친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말 것

-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업무를 빨리 빨리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타입으로 바이어에게 전화로 재촉하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 이럴 경우에는 매일 전화를 함으로써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2일 혹은 3일의 간격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

○ 바이어로부터 무 회신에도 지속적인 연락 필요

- 아르헨티나 인들과 거래할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곧바로 회신하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락을 취해야 한다.
- 바이어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만만디 스타일이거나 또는 실제로 여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에 신경을 쓰면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사용언어 및 연락시간대

○ 바이어 20%가 영어를 구사

- 무역관이 접촉한 경험으로는 수입상 중 20% 내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거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거래제의 교신 시에나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에 통화 시에는 가급적 스페인어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이어와 오전에 연락하자 (한국과 -12시간 시차)

- 대부분의 담당자는 오전에 잠깐 회의를 가진 후 12시까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관의 경험으로도 오전시간에 담당자와의 연결 확률이 오후시간보다 높았다.

○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자

- 시차, 언어, 환경문제로 전화, 팩스보다는 이메일이 바람직하다.
- 50% 이상의 아르헨티나 기업은 팩스를 전화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팩스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쎬날 데 팩스, 뽀르 파보르(Señal de Fax, Por Favor)"라고 말하면 팩스 신호음이 들리면서 송신이 가능하다.
-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많다. 끝.

## V. 무역관 직원 연락처

성명/직위	휴대폰/대표전화/내선
김상순 관장	15-3579-6789 4312-0033 (101)
윤예찬 부관장	15-3579-6791 4312-0033 (102)
Gustavo Muller	15-6324-1062 4312-0033 (103)
강영광(Samuel) 과장	15-6457-1004 4312-0033 (104)
김준수(Diego) 대리	15-5609-6562 4312-0033 (ext.105)
하은주(Ju) 대리	15-6693-4616 4312-0033 (107)
주소미(Ana) 대리	15-3476-9502 4312-0033 (106)
박예리(Yery) 대리	15-3007-9288, 15-3579-6790 4312-0033 (110)
김슬비(Erika) 대리	156-473-1542 4312-0033 (114)

부에노스 아이레스 무역관 Tel. 54-11-4312-0033  
Olga Cossettini 831, Piso 2, Oficina B, Puerto Madero, C.A.B.A, Argentina



[www.kotra.or.kr](http://www.kotra.or.kr)